

저는 지역에서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병원동행, 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며 1년에 1만 명 이상의 돌봄 대상자와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긴급 돌봄 공백'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다양한 돌봄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누가 즉시 지원할 수 있는지 현장 종사자들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노부부가 생활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장기요양등급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다음 날부터 3~5일 정도의 긴급 돌봄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을 곳이 없습니다.

둘째, 혼자 병원을 방문했다가 입원이 결정된 경우입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보호자는 제주도나 수도권 등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바로 올 수 없습니다. 결국 환자는 혼자 병실로 이동해야 하거나 응급실에 장시간 머무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셋째, 장기요양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응급상황으로 환자를 병원까지 모시고 왔지만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는 다음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현장을 떠나야 하지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간병인도 연결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제도권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이에 전주시에 「긴급돌봄지원센터」 또는 「24시간 긴급돌봄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퇴원 직후 긴급 돌봄 연계

보호자 부재 시 병원동행 및 입원 지원

응급실 및 병실 이동 지원

단기 간병인 및 돌봄인력 긴급 매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응급돌봄 지원

야간·주말 돌봄 공백 대응

병원, 소방, 복지관, 돌봄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러한 긴급 돌봄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긴급돌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도시가 되기를 제안드립니다.